

공감된 평화와 제주

Authentic Peace and Jeju



필자 소개

정수희 ·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SSK연구교수

문화공간과 문화적공동체, 문화정책, 콘텐츠투어리즘 등 융합적
관점에서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 중임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 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평화의 섬
시리즈
⑥

공감된 평화와 제주

Authentic Peace and Jeju

CONTENTS

요약	2
I 서론	3
II 도시이미지의 형성과 사회적 공감	6
III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재고(再考)	10
IV 공감된 ‘평화의 섬 제주’로의 접근	23

공감된 평화와 제주

Authentic Peace and Jeju

요약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의 진정성에 근거한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이미지의 진정성은 도시에 대한 공감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는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 소명과 객관적 시선에 의한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즉, 도시이미지의 구축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감정적 공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 사회적 합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공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일본의 히로시마가 평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다룬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상흔을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로 전환시켜 도시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도시’로서의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온전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도시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공감’의 문제에 주목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제주가 보편적인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 **주제어** 평화의 섬, 평화도시, 히로시마, 도시이미지, 사회적 공감

1. 서론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30여 년 전 시작된 제주에서의 평화를 위한 여러 만남들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부각시켰다.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으며 제주 평화의 섬 계획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세계평화의 섬’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평화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로, 적극적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지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건설하는 제과정을 의미한다.¹⁾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조성된 관련 인프라는 국제적인 평화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했다. 이와 함께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구축해 온 ‘3無’의 정신이 반영된 삶과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환경은 ‘평화로운’ 제주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이때 제주의 ‘평화’는 주지하다시피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이때의 평화의 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창출되고 확산되며 정착되는 장소로서의 제주, 천혜의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치가 소통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제주의 이미지는 사실 정치외교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략적인 장소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거점으로서의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 이를 통한 제주자치도와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행보의 결과이다. 기능에 근거한 장소성으로서 새로운 제주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가 보다 본질적인 ‘평화’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진다. 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치·외교적 입장에서의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이 광의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평화’의 실체와 제주와의 연관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은 아마도 평화의

1)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peace/summary/mean.htm>, 최종검색일 2020년 8월30일)

섬으로서 제주의 정체성, 그에 대한 진정성과 직결될 것이다. 즉, 제주의 진정한 장소성과 관련된다.

장소성은 특정 장소에 인간의 경험이나 활동이 더해지며 만들어지는 장소에 대한 의미이다. 장소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며, 도시 내외부의 환경과 주체들 간의 소통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한 지역의 장소성은 해당 지역의 '근원적인 것(origins)'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s)'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Zukin 2010). 지역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지역이 가진 정통성과 이상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때의 정통성은 지역의 문화적 요소로서 역사, 전통, 관습 등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안에서 형성된 가치이자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지역을 결속시키는 동력이며, 동시에 지역의 이상과 지향점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역의 자원들은 지역의 이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재구성되고, 이는 구성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가치이자 정체성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장소성은 지역 내외부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공감(empathy)을 통해 한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이미지로 발전될 수 있다. 도시이미지는 도시구성원의 정체성과 외부로부터의 시각이 더해지며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외부인의 기억과 평가는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글은 제주와 유사하게 평화도시를 주장하는 히로시마의 사례를 통해 도시 이미지의 공감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의 원폭투하 이후 도시의 재건 과정에서 도시의 부정적 기억을 덮고,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환을 위해 '평화도시 구상'을 발표했다. 그들의 평화도시 구상은 전쟁의 기억을 '평화'라는 보편적 인류가치로서 전환하며 접근한다. 이 계획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히로시마를 잇는 중심축이며, 동시에 현재의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도시를 바라보는 제3자이자 역사의 반대편에 놓인 관계자로서 우리는 이 도시의 평화도시로서의 행보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 도시가 이야기하는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에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가, 이는 충분히 공감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즉, 히로시마는 진정한 '평화도시'로서의 공감을 얻고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여기서는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극단의 상황에서 도시를 희생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국제적 위상으로까지 연결된 그들의 평화도시 전략에 우리는 왜 공감할 수 없는가의 문제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도시이미지의 형성과 사회적 공감

도시이미지는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 지역에 대해 갖는 일련의 신념’(Kotler 1986)이며, ‘특정 지역(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 혹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Boulding 1956)로 설명된다. 즉,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도시경험이 발생시킨 정서적 차원에서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주관적인 이미지들로 형성된다. 개인적 차원의 도시이미지들이 다수에 의해 합이되고 공감을 얻는다면, 이것은 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발전한다. 이때의 도시이미지는 더 이상 정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상징이 되며,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로서 도시를 이끄는 가치와 비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도시들은 때때로 전략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도시가 가진 기존의 여러 이미지들 중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강화, 보완, 생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도시이미지는 도시 내부(혹은 전략기획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정체성과 함께 도시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gaze)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기억은 전략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키케로(Cicero)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도시가 가진 특별한 기억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당성, 그리고 문화의 목표를 설명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윤현호 외 2011, 269). 이 과정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화 자산은 도시 내외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도시의 역사는 내부구성원들에게는 직간접적 경험의 기억인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외부인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간접적 이해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도시이미지에 대한 합의는 도시가 가진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공감(empathy)’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혜적 관계를 의미하는

동정(sympathy)이나 연민(compass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자 능력이다. 또한, 타인이 처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지, 그에 대한 이성적·감정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타인과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유찬기·남기범, 2018).

『공감의 시대』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2010)은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를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 발달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관계적 성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개인의 정서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으로 연결된다. 사회적 공감은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인 시갈(Segal, 2007)에 의해 강조된 개념으로,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장원호, 2019). 즉, 타인의 삶이나 상황을 경험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핵심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스템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사회적 공감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 공감에 그치지 않고 해당 문제에 대해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하며 사회 구조적 한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의한 사회적 판단(social justice)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는 이것이 얼마나 윤리적 가치를 따르고 있느냐의 기준에 놓이게 된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해당 문제와 나 그리고 타인의 관계가 얼마나 윤리적 합당성을 갖게 되는가에 따른 가치판단에 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해당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관계중심적 통찰력을 통해 가능해진다.

사회적 공감에 가진 관계중심성은 결국 공감담론에서 강조하는 타인지향성과 일치한다. 이러한 특징은 시갈의 사회공감지수(ISEI, The Interpersonal and Social Empathy Index)의 항목 중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고려, 타인과 나의 감정에 대한 차이,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이 주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

있다(Segal, 2011; 장원호, 2019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회적 공감은 개인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공간의 문제를 사회구조에서의 관계로 확장시켜 접근한다. 즉, 도시라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으로 나와 다른 타인의 관계에 기반을 둔 구조적 문제점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회적 공감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이미지와 사회적 공감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영역적 개념으로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는 내외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유기체이다. 때문에 도시는 다양한 관계와 이들 사이의 유대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 유대는 도시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이해, 통찰을 통한 공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도시이미지는 해당 도시가 가진 상징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도시가 가진 정체성의 발견과 상징화, 이에 대한 공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 이미지로 발전되기도 한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자원 중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의 대표성을 가진 자원으로 선택·집중하여 개발한다. 도시의 상징성에 근거한 도시이미지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도시이미지가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도시이미지의 공감은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와 관련 있다. 많은 경우, 진정성은 ‘진짜’를 입증하는 문제와 연관하여 접근한다. 진정성은 어떤 것에 대한 ‘진짜’를 기획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진정성이란 정통성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이해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타인의 공감을 획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검증의 문제와 연결된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들의 진정성을 통해 해당 도시의 도시이미지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는 다시 다차원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수용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접근하게 된다.

도시이미지에서 공감의 문제는 해당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으로의 연계,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공감(universal empathy)으로 확장된다. 이는 도시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가치로서 공감을 획득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도시이미지는 도시가 가진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상징화하고 대표성을 가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의 전환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재난을 당한 도시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미지는 재난 자체의 키워드가 아닌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순응’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를 도시이미지의 ‘보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전환되는 상징성은 사실관계에서 수요 가능한, 사회적 윤리 판단에서 동의가 가능한 확장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비약이나 이상화, 비논리적 일반화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편적으로 공감가능한 선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도시 이미지에서의 보편적 공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공감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이미지는 진정한 도시이미지로서 도시를 대표할 수 있게 된다.

III.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재고(再考)

히로시마는 전쟁의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이다. 역사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전쟁의 기억은 도시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기억이다. 전쟁의 상흔과의 별개로 현재를 살아가는 히로시마의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종전 이후 도시의 재건을 위한 키워드로 '평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는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를 도시의 이미지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 장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이미지의 구축과 형성과정을 통해 도시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공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히로시마 평화도시 전략 배경과 과정

20세기 초중반, 히로시마는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도시 중 하나였다. 특히, 일본 육군의 병참기지로서 전쟁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이기도 했다. 1894년 중일전쟁을 통해 군인과 병기 수송을 위한 주요 철도가 히로시마와 우지나 항구에 연결됐으며, 1945년 히로시마만 지역은 해군 시설과 함께 군사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본제강소히로시마제작소, 동양공업, 육군 피복지청,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히로시마기계제작소 등 주요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즉, 히로시마는 군사도시인 동시에 일본군의 무기제조창의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교육시설이 건립되고 20세기 정치, 경제, 지식과 교통의 허브로 발전하며, 이 도시는 노스텔지어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일본의 상징이 됐다(Jimura, 2012.; Yoshida, K., Bui, H. T., & Lee, T. J.,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히로시마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원주민 외에도 군인, 조선인 징용자, 공장 등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약 35만 명 정도가 머물며 양적으로도 성장했다(정근식 외, 2015).

이와 같은 성장환경과 입지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히로시마가 원폭투하 지점으로 선정되는 이유가 됐다.²⁾ 미국은 포츠담회담 결과, 일본의 항복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타, 나가사키 중 한 곳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고, 히로시마는 제1목표로 선정됐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우라늄형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그 이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다. 원폭투하 일주일 후, 일본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동시에 패전국으로서 전쟁의 폐해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됐다. 히로시마 역시 원폭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처와 함께 자신들의 도시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원폭투하의 피해를 비롯한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복구와 도시의 재건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시작됐다. 초기의 히로시마에서 평화도시는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나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응당한 가치 정도로서 시작됐다.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평화’는 유행처럼 사용된 키워드에 가까웠고, 히로시마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부흥을 위한 구호로 이를 사용했다(권혁태 2009).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히로시마 평화기념 건설법’(이하 ‘평화도시법’)이 제정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49년 8월 6일 공포된 ‘평화도시법’은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부흥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히로시마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다. 1950년 발표된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시안’은 평화운동의 근거지 구축에 필요한 시설과 평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1952년 3월에 구체적인 안이 결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5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그들의 계획대로 완성됐다.

2) 원폭투하 당시 인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히로시마의 상징이 된 원폭돔 역시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어진 상업전시관이었다.

표 1 히로시마 평화도시 전략의 주요 계획

평화도시 관련 계획	발표시기	주요 내용 및 특징
‘히로시마 평화기념 건설법’ 제정	1949년 8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 평화를 성실히 실현하지는 이상의 상징으로서 히로시마를 평화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목적) - 최초의 주민투표 - 정부의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발표	1950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운동의 근거지 구축에 필요한 시설 - 평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 건설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 구상’ 최종안 결정	1952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심지에 용지를 확보하여 기념시설을 건설 - 히로시마성 및 구육군용지가 있는 모토마치에 중앙공원을 건설 하고 경기장 등의 시설을 건립 - 시 중심부에 동서로 뻗는 100m 평화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20-30m의 간선도로를 종횡으로 500m 간격으로 배치하고 보조도로는 폭 6-20m로 함 - 시내를 관통하는 6개의 하천을 녹지대로 함

초기의 히로시마 평화도시 계획은 도시이미지의 쇄신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폐허가 된 도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당시 히로시마의 평화도시로의 계획은 원폭으로 무너진 도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외형적 정비와 환경의 개선과 함께 도시의 상징성 또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히로시마는 자신들이 원폭의 첫 피해지라는 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 원폭돔과 같은 상징물이 남아있다는 점, 많은 수의 추모비와 추모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원폭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어냈다는 점 등을 통해 원폭피해지역으로서의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들은 히로시마 원폭유산이 가진 객관적 진정성을 인정받게 했다. 그 결과, 원폭 관련 유산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원폭돔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³⁾

3)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히로시마 원폭돔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탐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2) 평화도시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이와 같은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계획은 현재까지도 히로시마를 유지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최근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히로시마는 이를 대표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장소 혹은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의 형태이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 자연재해, 참사 등 불편하고 혹은 소외되었던 역사적 장소에 주목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관광과는 달리 관광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본질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크투어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히로시마와 같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역사를 가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크투어리즘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준다. 다크투어리즘은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부정적 장소성을 활용하여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도시구성원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관심일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지의 주민들이 트라우마의 반복적 경험, 지역이미지의 훼손 등과 같은 내부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히로시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하여 접근한다. 즉, 원폭과 관련된 기억을 활용하여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하는 과정은 평화도시계획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그들은 ‘원폭’과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 ‘평화’라는 2차 키워드를 통해 접근한다. 예를 들어, 원폭과 관련된 유적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다크투어’ 대신 ‘평화투어(peace tourism)’로 명명하여 소개한다. 이는 히로시마가 주장하는 평화도시·평화기념도시 구상의 일환이며, 한편으로는 다크투어리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내부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히로시마의 경우, 일반적인 다크투어의 대상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정 장소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도시 자체가 그 대상이 된다. 히로시마는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한편으로, 국제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관계에 근거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진 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히로시마는 도시가 가진 부정적 역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

시켜야만 하는 입장이다.

히로시마 평화투어의 핵심장소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다. 공원은 현재의 히로시마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자원 중 하나이다. 도심 중앙에 위치한 공원은 히로시마 시민들의 일상공간인 동시에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현재, 히로시마 내의 원폭 관련 시설은 원폭돔을 비롯해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이 일대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구상의 결과로 조성된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그림 2 히로시마평화공원 전경



출처 : 히로시마시 홈페이지⁴⁾

▶ 그림 2 히로시마 원폭돔



출처 : 저자 촬영(2019. 1. 8)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히로시마의 평화도시구상의 중심지이다. 다시 그 중심에는 히로시마의 원폭 기억과 이후의 행적을 담고 있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이하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Orizuru Tower, 折り鶴タワー)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집단 기억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들 두 곳의 도시전시관은 도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한다. 두 시설은 공통적으로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평화도시로서 히로시마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4)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lg.jp>. (2019년 4월 20일 검색)

평화기념자료관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다른 원폭 유적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 중 하나이다. 전시관의 소개 자료에는 자료관의 설립목적은 원폭의 위험성과 함께 히로시마의 원폭피해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피폭 당시의 자료 3만여 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의 전체공간을 활용하여 무료와 유료공간으로 분리되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관의 상설전시는 도입(Part 1) - 핵무기의 위험성(Part 2) - 히로시마의 행보(Part 3)의 전체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전시실은 원폭투하 이전의 히로시마와 원폭투하라는 사진 - 핵무기의 위험성 - 히로시마의 피해와 극복/히로시마의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서 시작된 전시는 후반부로 갈수록 히로시마가 원폭투하라는 비극적 재난을 결국 극복해냈으며, 고통의 피해자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전시플롯은 도시의 아픈 기억을 풀어나가는 기본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플롯은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거북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해당 공간의 전시구성과 기술적 구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재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라는 인재에 대해 마치 어쩔 수 없는 절대적 약자로서 자신들을 피해자로서 표현하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희망으로서 지나치게 보편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의 도입부는 원폭이 투하된 시점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멈춰진 ‘원폭시계’의 강렬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히로시마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원폭시계의 시간이 멈춰 선 것에 빚대어 자신들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와 분리, 피폭의 역사로 전환시킨다. 즉, 히로시마의 기억을 전쟁의 과정과 원폭투하의 배경, 그로 인한 패전의 역사와 분리하여 재구성한다. 여기서부터 이 전시는 원폭 이전의 상황에서 분리,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집중한다. 이후 전시의 전개 역시 피폭으로 인한 히로시마인들의 고난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종이학’이라는 감성적 키워드를 통해 그들의 평화를 상징화한다. 이 이야기는 원폭투하

이후 백혈병에 걸려 고생하다 12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사사키 사다코라는 소녀가 회복을 기원하며 종이학(折り鶴, 오리즈루)을 접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이학은 히로시마를 관통하는 반전과 반핵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평화기념공원 내에는 사다코를 기리는 추모비와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료관 내 뮤지엄 샵에는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사다코는 무고하고 승고한 피해자로서 히로시마인들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평화기념공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에는 이곳에서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철저히 ‘피해자’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실제로 자료관을 비롯한 공원 내의 기념조형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의 모습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는 자신들은 전쟁의 책임자로부터 분리, 단지 무고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 표 2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구성과 주요 내용

Part 1. 원폭 이전 히로시마와 원폭투하		Part 2. 핵무기의 위험성		Part 3. 히로시마의 행보
원폭시계	원폭투하 디지털영상	원폭의 공포	사다코의 이야기	평화의 수호자로서 히로시마의 노력
				

출처 : 정수희·김봉채·이병민(2019)

평화공원 인근의 오리즈루타워는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서의 히로시마를 보여준다. 2016년 히로시마의 지역기업으로 자동차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쓰다(MAZDA)사에서 조성한 공간이다. 건물은 문화공간과 오피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은 상품판매 공간인 물산관(1F)과 타워 상층부의 전망대 및 카페, 유료 체험공간(12F, RF) 등이 마련되어 있다. 오리즈루타워는 종이학을 테마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 그림 3 오리즈루타워(좌)와 원폭돔(우)

출처 : 히로시마시 홈페이지⁵⁾

▶ 그림 4 오리즈루타워 건물 전경



출처 : 저자 촬영(2019. 1. 8)

오리즈루타워의 1층에 위치한 바(bar)와 식당, 물산관은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물산관은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토산품들과 히로시마 로컬브랜드의 상품 1000여 점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 편에는 종이학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공간은 건물의 고층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공간은 원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놀이방식의 참여형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⁶⁾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히로시마의 언덕(ひろしまの丘)’이라는 이름의 전망대(RF)는 외벽을 오픈형 유리벽으로 설치하여 히로시마의 전망을 내려다보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 겸 카페이다. 이 공간은 유리벽을 통해 원폭 돔을 비롯한 평화기념공원과 히로시마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데, 과거 피폭 현장의 잔재와 이를 극복한 히로시마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층 아래 위치한 체험 공간(12F)은 ‘종이학’을 소재로 체험, 디지털체험존, 작은 규모의 관련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은 이 층에 도착하면 종이학을 접는 종이를 받아 ‘사다코가 피폭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리며 접었던’ 종이학을 접는다. 접은 종이학은 오리즈루타워의 외벽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벽의 종이학 날리기 체험으로 연결된다. 사다코가 평화를 기원하면 접었던 종이학을 우리가 함께 접어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의 일부로 날리는 체험을 유도한다. 히로시마가 평화를 염원하는 활동의 일부에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체험부스 옆으로는 디지털 센서를 통해 몸짓으로 종이

5)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lg.jp>. (2019년 4월 20일 검색)6) 오리즈루타워, <http://www.orizurutower.jp>. (2019년 1월 10일 검색)

학을 접어보거나, 일본적 색채로 불꽃놀이를 형상화한 게임형 디지털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출구와 연결된 외부계단에는 슬로프를 설치, 마지막까지 유쾌함을 가지고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오리즈루타위는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서 매력적이다. 실제로 옥상의 전망대나 바, 레스토랑 등은 히로시마의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도 소개되기도 한다. 오리즈루타위의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오리즈루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히로시마 - 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느끼는 히로시마. 여러 방식으로 느끼는, 히로시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세토내해의 바람을 맞으며 각자가 품은 미래에 대한 생각, 히로시마에 대한 생각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경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한꺼번에)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 그것이 오리즈루타위입니다.” 이처럼 오리즈루타위는 평화전시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서 평화를 상징화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람객들은 이 공간의 유쾌한 평화를 즐기는 사이 자연스럽게 히로시마의 피폭의 역사와 사다코를 떠올리게 된다. 사방으로 뚫린 전망대의 유리벽 너머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평화기념공원의 모습과 재건된 도시로서의 히로시마의 모습은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도시의 경관을 통해 보여준다. 평화로운 히로시마에 드리운 원폭이라는 절대적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며 평화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평화기념자료관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히로시마가 왜 평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갖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 오리즈루타위는 공간의 체험과 사색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 표 3 오리즈루타워의 공간 구성

1층	12층		옥상층
상업공간(상점, 레스토랑, 바)	디지털 체험공간	종이학접기 체험	'히로시마의 언덕' 전망대
			

출처 : 정수희·김봉채·이병민(2019)

(3) 공감되지 못한 평화도시

전술한 바와 같이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구상은 원폭투하로 인한 도시의 파괴와 피폭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건계획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점차 상징화되며 히로시마적 사고로 각색됐다. 이 과정에서 평화도시는 더 이상 내부 구성원들의 희망을 위한 도시 구호로 머물지 않는다. 이는 점차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이자 도시브랜드로 전환된다.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원폭투하'라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자신들의 기억을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분리하여 원폭에 의한 희생의 문제로 철저히 전환, '피폭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에는 참전국 일본은 사라지고, 도시 히로시마와 히로시마의 선량한 시민들만이 남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단한 노력과 용기를 통해 반전과 반핵의 수호자로 성장한 히로시마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어느덧 히로시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를 수호하는 '평화도시 히로시마'가 되어 있다.

히로시마의 전략적 도시이미지의 구축과정은 도시 내부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한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시민으로서' 역사·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히로시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이라는 형태로 원폭체험이 계승되어 왔으며, 히로시마대학은 재학생들에게 필수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들도 이를 대학의 차별화된 문화로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도시

내에서는 다양한 평화관련 문화시민강좌, 세계대학생평화세미나, 학생 대상 평화 여름학교 및 평화교실 등을 운영되고 있다.

히로시마의 변화와 발전은 도시를 방문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시를 경험하는 외부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히로시마의 원폭 유산과 관련된 문화시설들은 히로시마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슬픔'과 '아픔의 공간'임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인류 최초의 원폭투하지라는 상징성은 이곳을 더욱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 시민들 대상의 무차별 대량사살의 잔인함과 '핵무기'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며, 인간으로 근원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 반전과 반핵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히로시마'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평화도시'라는 점에 한편으로 수긍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도시 곳곳에 내재된 히로시마의 '평화 도시'에 대한 입장은 히로시마의 '평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히로시마에 의해 맥락화된 '평화'는 그 근원에 놓인 '왜'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 도시 히로시마는 '왜' 히로시마는 원폭투하의 대상지가 되었으며, '왜' 선정지가 될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왜' 평화도시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평화'라는 상징만으로 지나치게 축소하여 접근한다. 물론, 히로시마의 주장처럼 어떤 이유로든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럼에도 히로시마의 '평화'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편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보편적 공감을 유도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스토리로 전환된 자신들의 기억에의 공감을 얻는 과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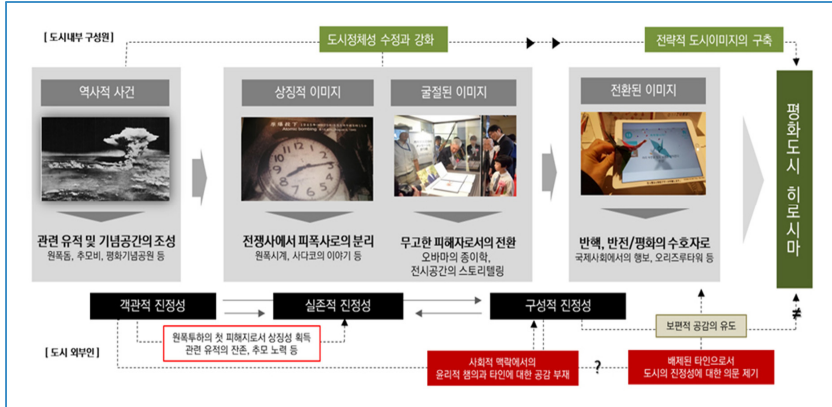
평화기념자료관과 오리즈루타워의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히로시마의 오류를 증명해 준다. 전쟁의 과정과 결과로 인한 원폭투하라는 사건을 히로시마의 피폭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전쟁'의 주체와 분리된 피해자로 설정한다. 현재의 일본이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역정체성과 독립적 성격이 강화된 구조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군국주의사회에서 군사도시로서 성장한 히로시마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해 편의적으로 분리해버린 히로시마의 입장은 반감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반감의 기저에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직간접적 피해자이며, 동시대의 타자에 대한 배제가 그 원인일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 속에서 분리된 독립체로서 '도시'가 사회적 타자로서 다른 국가나 도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통의 원인과 주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확대해 나가며 생기게 된 오류이다. 히로시마의 고통은 인류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아픔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의 연대인 동아시아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때의 공감은 한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국가로부터의 공감을 얻는 문제도 해당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아픔과 입장에 대한 일본과 히로시마 측의 공감을 위한 노력의 부재에도 기인한다. 사회적 공감은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닌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형성된다. 사회가 처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전제로 형성된 연대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히로시마가 일본 내부 혹은 도시 내부의 고통에 집중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보편적 가치로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타인들은 히로시마가 아무리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한다고 한들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성공적인 듯 보인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시의 재건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 평화 가치를 전파하는 평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전략은 유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생, 조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 편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평화도시'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적 공감이 배제된 보편적 공감으로의 접근이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히로시마는 공감되지 못한 평화도시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림 5 히로시마의 도시이미지 구축과정에서 진정성과 공감의 획득 구조



출처 : 정수희·김봉채·이병민(2019)

IV. 공감된 ‘평화의 섬 제주’로의 접근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도시이미지의 형성과정에서 공감의 문제에 접근해보았다. 히로시마의 사례를 통해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 도시이미지로 구축해나가는 과정과 그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상처와 결과를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로 전환하여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히로시마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한 ‘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를 꽤나 얻은 듯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예기치 못한 도시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들이 선택한 평화도시전략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평화를 도시이미지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의 다른 측면에서 있는 또 하나의 관계주체로서 우리는 이를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한 도시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다양한 관계대상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 요구된다. 물론,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문화유산이나 역사,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 담긴 보편적 가치에의 발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아우르는 타인과의 관계성에 근거한 상호 간의 공감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타자의 입장과 차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행위를 통한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는 평화의 섬을 주장하는 제주에도 적용된다. 현재의 제주에는 4.3 사건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정체성, 제주에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정치·문화적 교류의 흔적, 정부로부터의 인증, 평화를 주제로 한 여러 시설들과 전문 인력 등 ‘평화의 섬’의 상징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한다. 이는 제주가 지향해 온 적극적인 평화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정당성을 갖게 하는 기본 인프라로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평화의 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갈 시점이다.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으로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이자 도시브랜드로의 ‘평화의 섬’에 접근해야 한다. 도시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도시가 도시의 정체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정당성을 얻는다. 그렇기에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제주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여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평화의 섬을 지향해온 제주이지만,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배제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방향성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제주의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정세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진정성에 주목하며 제주를 관통하는 가치로서 평화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실제 제주의 구성원들은 제주의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평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가치의 공유에 대한 부분이다. 정책적 지향점으로서의 ‘평화’를 넘어 제주를 관통하는 삶의 가치로서 ‘평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들어진 ‘평화’에 대한 이해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된 ‘평화의 섬 제주’로 접근해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합의의 과정을 통해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서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진정성의 획득은 지속가능한 진짜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태(2009), 「지역 공간의 재구축: 히로시마 평화공원, 개발과 평화이념 사이에서」,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조성을 위한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 166-185.
- 김지나(2016), 「도시장소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분석: 서울 청계천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pp. 231-246.
- 문경희(2017), 「전쟁 고통의 재현과 평화: 일본 작가들의 평화그림책과 고통의 연대」, 『한국민족문화』, 62, pp. 75-116.
- 알라이다 아스만(2011),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 어정연·여홍구(2010),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45(6), pp. 21-34.
- 유찬기·남기범(2017),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13, pp. 75-100.
- 윤석정(2019),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와 한국 배제」, 『아태연구』, 26(1), pp. 41-71.
- 윤현호 외(2011),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관광경영연구』, 26, pp. 267-286.
- 장원호·정수희(2019), 「도시의 문화적 공감대로서 콘텐츠씨의 인식: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 123-140.
- 정근식 외(2015), 『포위된 평화, 굴절된 전쟁 기억: 히로시마 만의 균형도시 구례 연구』, 제이앤씨.
- 정수희·김봉채·이병민(2019),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연구: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6(2), pp. 171-197.
- 제레미 리프킨(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 Ahmed, S.(2013),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Boulding, Kenneth E.(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Wang, N.(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pp. 349-370.

Zukin, S.(2010), *The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oshida, K., Bui, H. T., & Lee, T. J.(2016). "Does tourism illuminate the darkness of Hiroshima and Nagasaki?",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5(4), pp. 333-340.

오리즈루타워. <http://www.orizurutower.jp>. (2019년 1월 10일 검색)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lg.jp>. (2019년 4월 20일 검색)

평화의 섬 시리즈 ⑥

공감된 평화와 제주

Authentic Peace and Jeju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2월 4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값 8,000원

ISBN 978-89-93764-26-0

ISBN 978-89-93764-20-8 (세트)



공감된 평화와 제주
Authentic Peace and Jeju

값 8,000원

94300



9 788993 764260

ISBN 978-89-93764-26-0

ISBN 978-89-93764-20-8 (세트)